

사 랑 사 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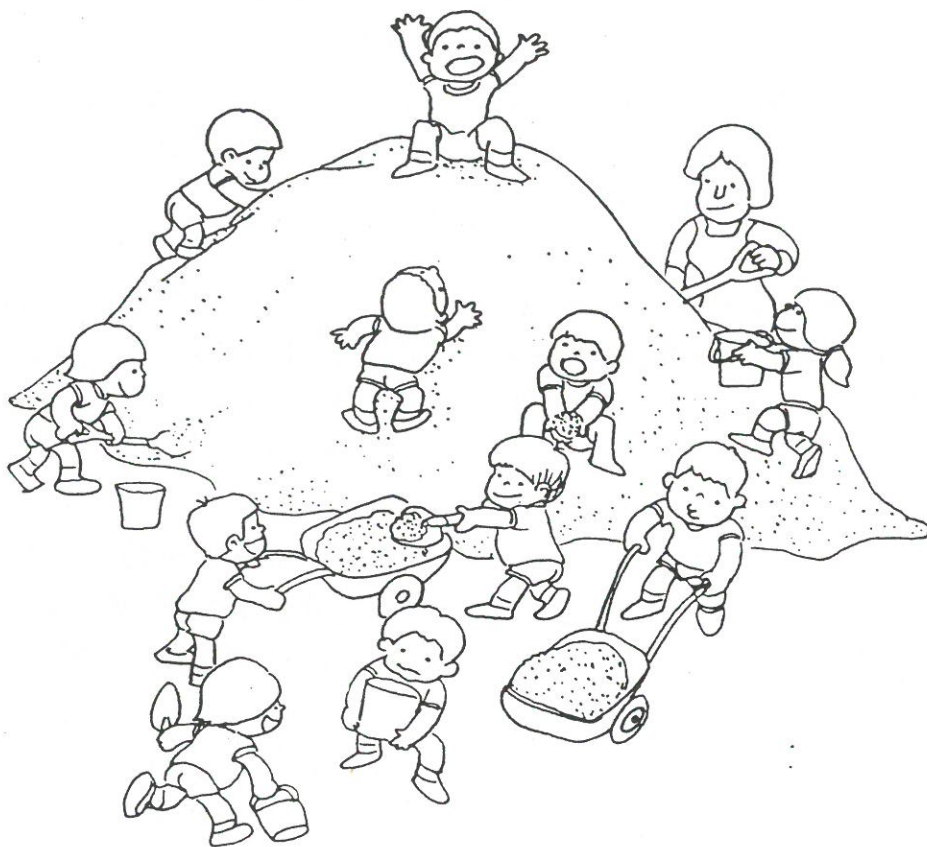
회원통신 제63호(2000/3/20)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Korea

(110-522) 서울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대표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통신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누리)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sarangbang.or.kr>



“때묻지 않은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사랑방은 올해 '청소년'들과 함께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의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는 작업(민간보고서 작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고 싶은 청소년들'
이 작업에 함께 하고 싶은 청소년들을 기다립니다.

문의 : 고근예(02-741-5363)

사 / 업 / 보 / 고

(2000년 2월 셋째 주부터 3월 둘째 주까지)

매매춘 인간 존엄성과 양립 안돼 3월 '성매매와 인권' 월레포럼

매월 첫째주 토요일 교육실이 주관하는 사랑방 월레포럼이 지난 3월 4일 열렸습니다. 4번째를 맞는 3월 월레포럼의 주제는 '성(性)매매와 인권'이었으며, 15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월레포럼에서는 '매매춘' 문제를 중심으로 성매매와 인권의 상관성을 토론하였습니다. 최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 김강자 서장의 대대적 미아리 단속 등으로 매매춘, 특히 미성년자 매매춘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듯 참가자들의 토론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월레포럼에서는 "매매춘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매매춘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신체에 대한 배타적 점유권이 매매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매춘(賣春) 여성은 매춘(買春)남성에게 일시적인 노예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점 △이러한 종속적 위계관계는 필연적으로 폭력과 존엄성에 대한 공격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 △자발적(?) 선택에 의한 매매춘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매매춘 구조에 빠져들게 되면 매춘여성들이 필연적으로 경제적 착취와 성적 착취, 다양한 형태의 폭력, 사회적 보호망으로부

터의 배제, 사회적 낙인 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점 △주로 여성들이 매춘에 내몰리게 되는 것은 여성차별적 노동시장과 가부장적 성문화, 여성의 성의 상품가치를 노동의 가치보다 우월한 것으로 만드는 자본주의적 성산업 등의 결과이므로 매매춘은 남녀의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인권의 원칙에 부합하기 힘들다는 점 등이 매매춘의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1949년 유엔총회에서 승인되고 51년 발효된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매춘에 의한 착취 금지 조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역시 "매매춘을 통한 착취와 매매춘을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와 결코 양립할 수 없으며, 개인은 물론 그 가족과 공동체의 안녕을 위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조약' 또한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1962년 매매춘조약에, 1984년 여성차별철폐조약에 가입한 당사국입니다.

4월 월레포럼은 '선거와 인권'을 주제로 4월 1일(토)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선거와 인권의 상관관계,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는 조건 등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4월 10일 인권조약을 알리는 날

오는 4월 10일은 국제인권조약의 양대 조약인 자유권, 사회권 조약에 우리 나라가 가입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을 맞아 사랑방은 우리 사회에서 인권조약에 대

해 한 번 더 알릴 수 있는 행동을 준비중입니다. 직접적인 행동은 그때가 선거 시기이므로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로 국가기관에 조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행동들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정부에는 양대 조약의 정부 보고서 심의 이후 권고 사항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서 권고 사항을 실행할 것, 법원에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인권조약을 판결에 인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학의 법과대학에는 인권조약을 강의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한편, 이날 국제인권법학회는 서울대에서 심포지엄을 갖고, 이 두 조약의 국내 적용 실태 등을 조명하게 됩니다.

인권교육실; 교재개발 사업 활발

교육실에서는 '교재개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와 대학생 등 7명의 자원활동가들이 결합하고 있는 교재개발팀은 2월 29일~30일 학습 M.T를 다녀왔고, 일주일마다 모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재개발팀이 개발하고 있는 교재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엔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가르칠 수 있도록 풍부한 정보와 활동 프로그램이 담길 예정입니다.

올해 정부는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 2차 정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실에서는 민간단체 반박 보고서 작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박보고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쓴다는 데서 각별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교육실에서는 보고서 작업을 수행할 청소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청소년단체와 동아리, 개인들을 만나 이 프로젝트의 의의를 설명하느라 발걸음이 갈수록 분주해

질 예정입니다.

교육실이 번역과정에 참여했던 『아시아의 인권교육 - 호주·인도·홍콩편』(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 도서출판 사람생각)이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실제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교과목과 접합시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회권위; 조약해설서 초고 작성

사회권위원회는 사회권조약 해설서 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조약 해설서를 3월중으로 초고를 완성하고 다음 단계의 사업으로 나아간다는 기본계획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4,5일 1박2일간 용문산으로 MT를 다녀왔습니다. 현재 조약 해설서 초고는 준비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조 검토하고, 대표 집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5월까지 출판사에 원고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회가 해설서를 다듬고 있는 동안 다른 성원들은 우선 4월 10일까지는 캠페인에 집중하고, 이후 민간단체 보고서 작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보고서 작업은 보고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쟁점들을 갖고 문제제기하는 것이 주안점이 될 것입니다.

한편, 사회권위원회가 간사단체를 맡고 있는 아셈2000민중회의 인권분과는 오는 3월 24일 부산인권센터에서 회의를 갖고 의제를 심화시키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합니다.

자유권위; 법원에 시승시갑 재판 질의서

자유권위원회는 최근 법정탈주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에 대한 시승시갑율이 높아지고 있어 3월 17일 서울고등법원 재판과정을 방

청한 결과를 토대로 당 법원에 질의서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또한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양만신씨의 사례에 대해 검찰에 수사 촉구서한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양씨는 청송교도소 수감중 교도관들의 가혹행위에 항의하며 자해한 사실이 있고, 교도관들에 대해 고소했으나, 검찰의 기소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태입니다. 마산교도소에서 수감중 폭행당했던 김석진씨 사건에 대해서 의견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보안법 사업은 휴지기를 맞고 있으나, 민변, 민가협 등과 함께 『김대중 정부 2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사랑방은 '7조3항의 문제점'과 '양심수의 석방과 보안관찰 현황' 부분의 집필을 맡았습니다.

한편, 지난달부터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월례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달에는 지난 18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모임에서는 김동한 박사의 '북한법제에 나타난 인권보장 규정' 발제를 시작으로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토론회에는 민족회의 김성만 사무총장, 한반도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정육식 대표 등 12명이 참가했습니다. 다음달 주제는 '민주화운동보상법 및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어떻게 할 것인가?' (4/15)입니다.

사랑방 홈페이지가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워진 사랑방 홈페이지가 지난 2월 23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편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사랑방이 현재 어떤 사업과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으며, '자료실' 메뉴에 들어가시면 사랑방 사

업 및 활동의 성과물들을 비롯해 사회일반에 대한 것까지 유용한 자료들은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게시판통해 자원활동가 및 네티즌들의 참여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각 실 및 위원회 별로 게시판을 마련, 각 소모임에 참여하는 자원활동가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인권하루소식' 메뉴에는 '오늘의 인권하루소식' 외에 인권하루소식에 대한 '제보 및 의견' 게시판을 마련하여 네티즌들의 날카로운 비평 및 사건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만화사랑방' '인권영화제-인권영화제의 역사' '자유권위원회-감옥의인권' '영문홈페이지' 등이 아직 작업중인 메뉴들이며, 4월중으로 완벽하게 개편된 홈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야유회 갑니다.

4월 13일 투표를 마치고 사랑방의 모든 식구들(상임활동가, 회원, 자원활동가 등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유회를 가려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등을 결정하진 않았지만 아마 '등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3월 들어 이주영씨와 이창조씨가 아르바이트에 나섰습니다. 이주영씨는 영어학원 강사로, 이창조씨는 논술 첨삭지도를 택했습니다. 이창조씨는 3월부터 반상근 근무를 하게 됩니다.

□ 최은아씨가 몇 차례나 출국을 미루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 18일 스위스 제네바로 출국했습니다. 최은아씨는 국제인권봉사회(International Humanrights Service)의 연수과정을 통해 56차 유엔인권위를 모니터 하게 됩니다.

2000년 2월 회계 보고

(2000년 2월 16일 - 2000년 3월 15일)

이월금: 294,661원

수입		지출	
사업수익	4,378,470원	사업비	1,004,480원
- 하루소식	3,600,060원	- 하루소식 우편발송비	124,890원
- 구독료(198명)	3,570,460	- 자료구입 및 제본비	20,930원
- 인권시평 배급	29,600	- 교육실 MT	30,000원
- 간행물 및 자료판매	171,810원	- 후원회 소식지 제작·발송	28,660원
인권교육길잡이	5권	- 연대사업(아셈민간포럼)	100,000원
인간답게 살권리	15권	- 하루소식 합본13호 제작	700,000원
하루소식 합본호	2권		
아이들의 인권	4권	활동비	3,910,000원
한국감옥의 현실	2권	사무실유지비	933,180원
- 강연료	400,000원	통신비	948,420원
- 원고료	70,000원	- 일반전화, 팩스	847,340
- 인권교육워크샵	86,300원	- 피서통신, 인터넷	101,080
- 영상자료 대여비	15,000원	난방비(가스, 기름)	91,440원
- 자료복사비	35,300원	사무비품 및 기기	409,200원
후원금	3,418,860원	식비	228,050원
- 후원회비(60명)	2,368,860	생활비	47,730원
- 특별후원금	1,050,000	랜(LAN) 공사비	250,000원
기타	304,076원	기타	93,424원
- 류은숙씨 기여금	300,000	- 정간물 구독료	19,000
- 은행이자	4,076	- 기타	74,424
총수입:	8,101,406원	총지출:	7,915,924원
잔액 :			480,143원
현 부채액 :			8,806,500원

<2000년 2월 재정 세부사항>

-부천 밀알교회에서 후원금을 보내주셨고, 익명의 후원자들이 소액의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지난달에는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납부자가 대폭 늘었으며, 장기미납액을 납부해주신 분들이 많아 전월에 비해 90만원 이상 구독료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전체 구독자의 숫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출 규모가 각 항목마다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하루소식 합본 13호(99년 하반기) 제작에 70만원의 비용이 소요됐으며, 사무국 내 컴퓨터 네트워크 공사비용으로 25만원 정도가 별도로 지출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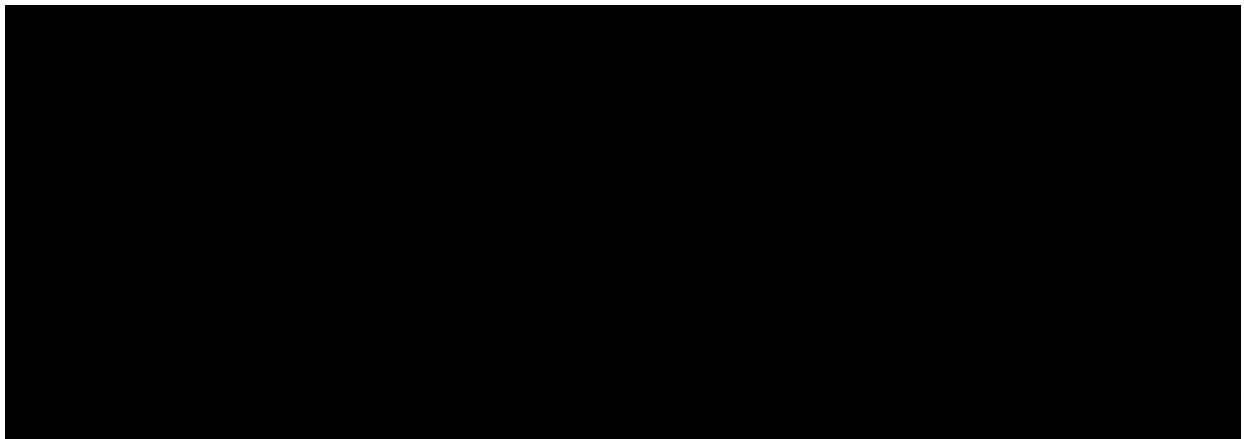
-팩시밀리 카트리지(12만원), 컴퓨터 부품(11만원), 제본용품(7만원), 대봉투(5만원) 구입 등으로 인해 지난달에도 사무비품 비용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자료실용 중고 책꽂이 하나(홀쭉한 책꽂이)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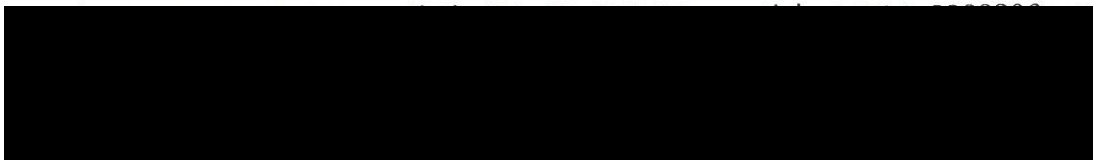
-후원회원의 수가 계속 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인터넷 전용선 설치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두루넷을 신청했지만, 이 지역에 케이블 설치가 어려워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다른 전용선 서비스들은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돼 선택을 못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좋은 방안이 있는 분 연락바랍니다.

<2월 후원회비 납부 감사합니다>(가나다순)



후원회비 납부계좌



*** 기탁 문의는 총무 이창조(02-741-5363)